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8월 8일(주일) 제1356호

“목사님 걸어가신 그 길 따르겠습니다!”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추모기간 및 추모예배

“목사님 걸어가신 그 길 따르겠습니다!”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를 보낸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다짐이 하나 같았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8월 2일 (월)부터 6일(금)까지를故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의 뜻과 꿈, 비전을 되새겼다. 추모기간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에서는 하용조 목사 생전 설교 영상이 상영됐다. 8월 2일에는 Acts 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추모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 유가족, 교회 리더십(당회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조응하고 차분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추모예배는 정진호 장로(당회서기) 대표기도, 블러썸 챔버 특순, 추모 영상 상영,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 가족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당회서기 정진호 장로는 “하용조 목사님은 참된 예배자, 성령의 사람, 선교에 목숨 건 상처받은 치유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 우리의 스승이요 동역자요 친구”라고 고인을 기억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뜻을

이어 우리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소명과 비전을 잘 감당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하용조 목사님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면서 “우리가 하용조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형기 원장(하용조 목사 사모)은 “늘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하신주 선교사(하용조 목사 동생)는 “늘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오빠가 참으로 보고 싶고 그립다”고 했고, 김영애 권사(故 김영길 장로 사모)는 “하용조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령의 마음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선교사(故 김사무엘 선교사 사모)는 “사랑으로 인도해주시고 비전을 심어준 하용조 목사님



Acts29비전빌리지에 있는故 하용조 목사 묘소.

이 참 그립다”고 추모했다.

강부순 장로(서대문공동체)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용조 목사

님이 남겨준 커다란 믿음의 유산과 비전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비전을 후대에 잘 계승하도

록 더욱 노력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CGNTV 단편영화 〈사론컵밥〉 상영작 초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부문



CGNTV 단편영화 ‘사론컵밥’

CGNTV가 제작한 단편영화 〈사론컵밥〉이 제17회 제천국제음악

영화제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부문 공식 상영작으로 초청됐다.

단편영화 〈사론컵밥〉에는 문지인, 정하담 등이 출연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내용을 담은 따뜻한 영화이다. 작은 동네에 새롭게 문을 연 ‘사론컵밥’ 사장 ‘은혜’와 탈북민 출신 아르바이트생 ‘지숙’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편영화 〈사론컵밥〉은 8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메가박스 제천에서 상영된다. 8월 13일 오후 5시 상영에는 연출 김소윤 감독이 참석해서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수용 인원 10%, 최대 99명까지

8월 9일부터 예배당 예배 인원 확대

8월 9일(월)부터 예배당 예배 인원이 확대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기준 본당 1층 99명, 본당 2층 61명, 비전홀 80명, 한동홀 30명, 두란노홀 30명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나머지 캠퍼스에서도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예배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서 반드시 예배당 예배 예약을 해야 한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 체크 및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예배당 예배와 더불어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CGNTV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학청년부, 차세대, 국제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새가족 등록 과정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라인 아웃리치 보안 신경 써야!

각 공동체, 다락방마다 온라인 아웃리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온라인 아웃리치를 위해서 보안에 각별히 신

경 써야 한다. 이쯤이야 하는 실수는 선교사와 선교지에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온라인 아웃리치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보안지역 선교사의 이름, 얼굴이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안지역 온라인 아웃리치 영상, 링크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안지역은 2000선교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자녀교육 Q&A

“소리 지르고 공격적인 행동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집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른들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유아기 아이들은 바깥 활동을 통해서 대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더 많은 제재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

유아는 생각보다 행동이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쌓여 있던 스트레스에 더해지는 작은 통제에도 쉽게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다.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걸음마 시기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거나 욕구가 좌절된 상황을 경험하면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발길질하며 뒹굴고, 몸이 뻗뻗해지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분노발작(temper tantrum)’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유아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양육자도 매우 당황하고 같이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게 된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만 1.5~4세 유아들이 발달하면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평소 양육자와 아이가 정서적으로 친밀감

의 토대를 잘 쌓아 놓았다면 이 시간을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정서적 친밀감을 쌓기에 앞서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실 유아들의 감정 폭발은 그 시기 유일하게 아는 좌절 표현 방식이다. 어른들도 너무나 바라던 일이 좌절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속상한 마음을 무엇으로든 풀고 싶어 한다.

“아이가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 수 있도록 양육자가 평소 좋은 모델이어야 한다.”

유아들의 마음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다. 유아는 아직 표현 방법을 잘 모를 뿐이다. 따라서 아이가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 수 있도록 양육자가 평소 좋은 모델이어야 한다. 작은 좌절 상황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녀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고, 무엇보다 아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권을 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이의 분노발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선택권을

줘서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이 시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모든 발달 시기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분노발작이 발생한 순간 양육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분노발작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순한 좌절감의 표현인지,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인지, 장난감을 원하는지, 졸린 것인지, 피곤한지 등 그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양육자에게는 이 시간이 단 5분이라도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여전히 부모가 옆에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동시에 흥분된 상황에서 어떻게 차분함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델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이가 진정된 후에는 차분해진 행동에 대해 반드시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아이가 느낀 좌절이나 분노에 대해 부모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좋은 양육자가 아니라 그런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을 멀리 날려 버리는 것이다. 유아의 표현이 서툴듯이 처음 부모가 된 양육자도 아이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다른 의사표현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신 내 아이를 위한 최고의 부모임을 잊지 말자!

/ 남은영 교수(성동광진공동체, 서울여대아동학과)

성경,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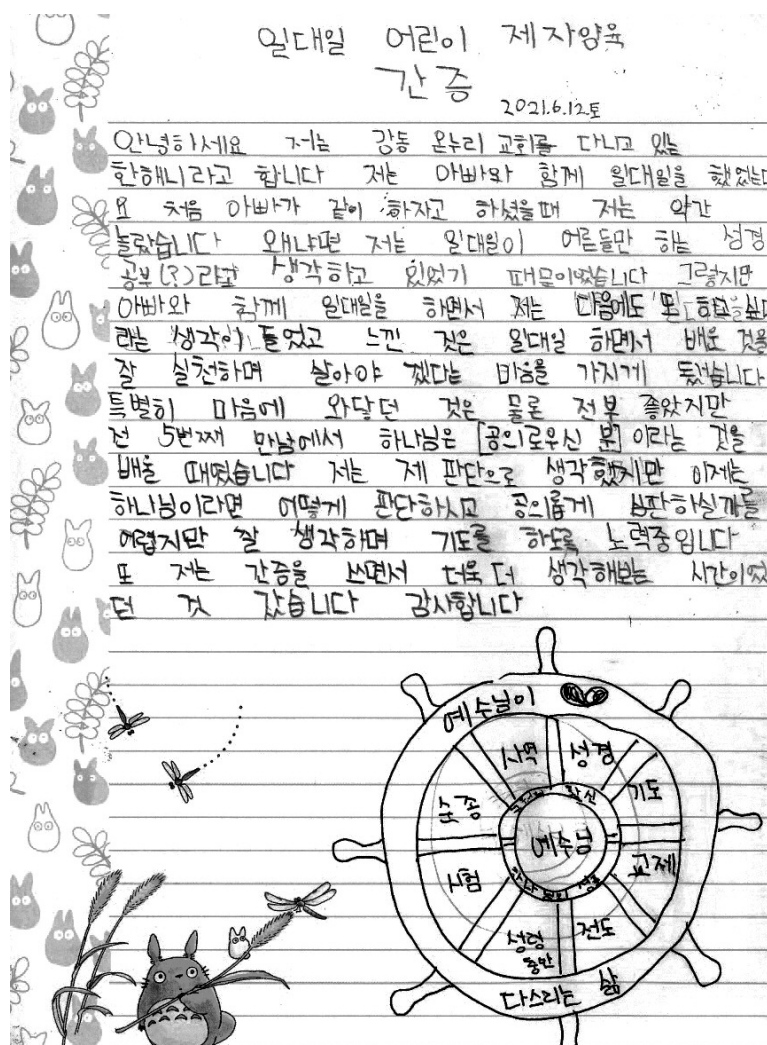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ㄱ’부터 ‘ㅎ’까지 순서대로 선을 연결해서 그림을 완성하고 색칠해보세요. 완성된 그림과 아래의 설명을 보고 정답을 맞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이끌었던 정치·군사적 지도자예요. 그 이름의 뜻은 ‘재판관’입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기드온, 삼손, 압다,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색칠해서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세요. <우리들 작품> 코너에 게재하고,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들 작품



〈아빠랑 함께! 제자양육〉

아빠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느낀 은혜와 생각을 글로 적었어요. 배우고 느낀 것들을 기억하면서 잘 실천하고 싶어요!

/ 한해니 학생(강동 꿈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아비아이고, 아비아의 아버지는 남 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아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아사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자랐을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조상들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와 눈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을 깨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 버렸고 그의 다스림 아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대하 14:2~5).

“아사 왕은 또한 자기 어머니 마야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역겨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대하 15:16).

한글성경에는 ‘어머니 마야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할머니입니다. 아사 왕은 단호하고 용기 있게 할머니를 물러나게 하고 온 백성들이 우상에서 떠나도록 다스렸습니다. 또한 아사 왕은 여러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 군사가 100만 명, 병거가 300만 명이었습니다. 남 유다의 병력은 유다, 베냐민 지파를 합해서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아사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대하 14:11).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기도 응답하셨고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대하 15:12).

“온 유다는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맹세한 것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께서도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주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대하 15:15).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전심을 다한 믿음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평안입니다. 평안으로 일어난 풍요가 따라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기복 신앙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찾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 있습니다.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순서가 바뀐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좇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앞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시 20:7~8).

왕이 의지하기 쉬운 것이 전차와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력과 경제력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이들은 앞드러지고 쓰러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들이 굳건히 섭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북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 왕국 유다로 이탈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이탈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곳곳에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실 아사 왕과 유다의 국력이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이 문제를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이 문제를 어떤 동기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주목하셨습니다. 아사 왕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금과 자기 왕국의 창고에 있는 은금을 뇌물로 보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과 조약을 깨뜨리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아람 왕이 북 왕국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니 당황한 북 왕국 이스라엘이 라마에 있는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피 흘리며 싸우지 않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전심을 다 하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아사 왕이 믿음은 언제나 전심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 하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랑은 열매가 없습니다.

아사 왕이 직면한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아 있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 왕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지켜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타락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전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죄를 “믿음으로 좇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죄는 자기를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추락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사 왕은 35년 동안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우상숭배를 근절시키고, 추진하는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사 왕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실패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성공할 때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성취도 포함됩니다. 한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지만, 기도 응답이 반복되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오용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한두 번 은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은사가 반복되면 성령의 은사를 착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언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는

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전심, 온 마음,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7절).

“아사는 이 말을 듣고 선견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왕은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몇몇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10절).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에 그는 발에 병이 났습니다. 병이 아주 심했는데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12절).

여기서 의사는 오늘날 의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술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전심의 기도로 승리했고,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며 우상을 근절시켰던 아사 왕의 믿음이 평안과 성공,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닳을 견고히 하나님께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배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전심, 온 마음,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평안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왕은 이번 일에서 어리석게 행했으니 이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9절).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자가 누구인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전심을 요구합니다. 전심을 다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던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했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화장품과 복음이 만났다. 화장품 기업 'J&B(제이앤비)' 대표 김선택 장로와 이순희 권사 부부(성북공동체)가 선교지에서 가져온 열매로 화장품 사업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다. 그 화장품 이름이 '더스킨 라파' (이하 더스킨)다. 가벼운 피부 트러블부터 여드름, 아토피까지 그 효과가 정말 좋다. 끊임없이 벌레가 달려들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선교지에서도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 더스킨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다주는 만능 통행권이다. 선교사 신분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화장품 더스킨만 있으면 갈 수 있다. 김선택 장로와 이순희 권사는 오늘도 화장품 더스킨에 복음을 담아 선교지로 보내고 있다. 선교사들의 돌도 없는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화장품과 복음이 만났다!

김선택 장로, 이순희 권사와 화장품 '더스킨'



김선택 장로, 이순희 권사(사진 왼쪽) 부부는 선교지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교육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릴 적 동화책에서 읽었던 신비의 물약이 내 손에 들어왔다. 화장품 '더스킨' 말이다. 종 종 이유 없이 얼굴에 올라와서 곤란하게 만들던 여드름을 단숨에 잠재웠다. 이 신기한 화장품의 주원료는 라임이다. 김선택 장로와 이순희 권사는 라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른다.

김선택 장로 부부가 라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선교지에서 얻은 열매이기 때문이다. 김선택 장로 부부는 2003년 인도네시아로 공동체 아웃리치를 갔다. 선교사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있는 이름 모를 열매가 눈에 띄었다. 난생처음 보는 열매였는데 자꾸 눈길이 갔다. 왠지 독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호기심마저 들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열매가 계속 눈에 밟혔다.

“식탁에 있는 열매를 보는데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꼭 쓸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 열매를 구할 수가 없어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열매 한 자루를 보내주셨습니다. 라임 종류 중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열매를 받긴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열매를 잘라서 먹어도 보고, 즙을 짜서 발라도 봤다. 그런데 열매즙을 바른 부위 아토피가 사라졌다. 김선택 장로의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덮고 있던 아토피가

말끔히 사라졌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토피가 정말 심했거든요. 한번 가렵기 시작하면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긁어대기 일쑤였는데 그 상처까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현대인 15% 이상이 아토피로 고생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열매즙을 짜서 크림을 만들어 아토피로 고생하는 조카에게 건넸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조카의 아토피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공동체 순장들과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이순희 권사 지인들이 그 크림을 '고약(膏藥)'이라고 부를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이 좋은 열매를 더 크게 활용하고 싶었다. 2년여 동안 임상시험과 연구를 거쳐 제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약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로 쓰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약은 아무나 만들 수 없을뿐더러 몇 년씩 큰 연구를 하고, 많은 임상시험이 필요하더군요. 고민하던 중에 어느 장로님의 조언을 듣고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피부를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태초의 피부를 생각하면서 '더스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선교 도구, 화장품

화장품 더스킨의 효과는 열악한 선교지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던 벌레가 이 크림만 바르면 특유의 향 때문인지 접근하지 못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입은 화상도 이 크림을 바르면 금세 가라앉았다. 오지나 열대지역에서 흔히 생기는 피부 트러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여드름 때문에 평생 고생하던 인도네시아 한 자매는 “더스킨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할 정도다.

김선택 장로 부부는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선교지로 나가는 장단기 선교사들과 현지 주민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더 좋은 제품, 현지에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몽골처럼 추운 나라에는 터지고 튼 피부에 바르면 좋은 크림 제품을 보내고, 인도네시아처럼 더운 나라에는 땀과 습진, 피부 진정에 좋은 크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더스킨의 효과가 인정받고 입소문이 나면서 선교사들에게 이보다 든든한 동역자가 없다. 선교사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 힌두권, 불교권 나라에도 화장품 더스킨과 함께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이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화장품 사업의 길을 열어주어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화장품이 또 하나의 선교 도구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높습니다. 그 덕분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서도 한국 화장품 장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 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과 친밀감을 쌓고 복음을 전하는 데 화장품 더스킨만한 선물이 없다. 김선택 장로 부부는 현지인들도 화장품 더스킨을 팔 수 있도록 사업을 내주고 있다. 피부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만들어주니까 너도나도 관심을 가지고 몰려온다.

“현지 사람들도 화장품 더스킨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일을 시작한 원주민들이 돌도 없는 동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옆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을 보고하고, 더 많은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

할을 합니다. 그들 손에 화장품이 아니라 복음이 들리는 것이지요. 현지인들에게 사업을 내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화장품 기업 J&B(제이앤비)가 꿈꾸는 비전이 있다. 선교사와 함께 일하고, 사역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선교사와 함께라면 그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은 선교사와 함께 일하기 위해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김선택 장로 부부는 선교사들에게 그 나라의 특성과 환경 등 현지 사정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각 나라에 맞는 화장품을 주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교육한다.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를 마다할 사람이 없다. 화장품 기업 J&B(제이앤비)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만족도가 하늘을 찌르는 이유다.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사역도 한다.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보내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매일 직원들과 함께 기도한다. 화장품 더스킨의 판매수의 대부분은 선교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사들과 동역하고 있다. 선교사 자녀를 위한 사역도 준비하고 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것이 화장품 기업 J&B(제이앤비)의 또 다른 꿈이다. J&B(제이앤비)는 선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꿈꾼다. 김선택 장로 부부는 선교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사업을 바탕으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사업이 잘 될수록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선교지가 부흥하는 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커지는 만큼 선교지에 부흥의 불길이 치솟기를 기도하고 있다. 김선택 장로 부부는 J&B(제이앤비)와 함께 자비량 선교사(선교지에서 생활비를 벌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다.

“저희와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화장품 더스킨을 선교지에서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선교지에 꼭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더스킨몰 홈페이지: theskinmall.co.kr
문의: 010-2439-2092(이순희 권사)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유연성!

“교회에서 사역할 때 행함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잘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뻘뻘하게 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책임감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회복은 철저하게 의사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고전 3:6).

교회사역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사람이 완벽하게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사역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다. 사역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 혹은 사업과 다르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사역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첫째,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게 좋은 것이다. 아빠가 아이 방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한다. 아빠 혼자 할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부르는 것일까? 아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정리하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른다. 이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다. 아빠의 좋은 마음에 대해 좋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 나쁘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해하도록 미혹하는 영이 있다. 바로 사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수록 사탄은 싫어한다.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실수록 사탄은 좋아한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일수록 사탄의 공격이 많다. 반대로 열심을

내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탄의 공격도 없다. 그러므로 사역을 할 때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피아(彼我)를 식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이미 이긴 싸움이다.

“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개역개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결판을 내신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직접 일하고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사탄은 이미 졌기 때문에 사역에 개입할 어떤 자격도 없다. 하나님은 사역을 성공하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사탄은 실패하게 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속인다. 거짓말한다. 미혹시킨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사역에 흔들림이 없다.

둘째, 유연성이 필요하다. 모든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정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팀의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제는 균형이다. 균형감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다.

영적 유연성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고전 13:2, 개역개정).

하나님은 최고이시기에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는 열매가 남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남는다. 사역이 끝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칭찬도 보람도 아니다. 동역자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의 것,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 탁월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사역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팀원 모두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역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준인 목사
(J4U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싸움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스포츠 경기에는 많은 규칙이 있다. 규칙이 새롭게 첨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규칙은 스포츠 경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규칙이 없는 경기는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는 ‘무규칙 싸움’이 된다. 무규칙 싸움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 성장과 발전, 공정에 대한 관심도 없다. 규칙이 있어야 공정한 틀 안에서 경쟁하게 된다. 규칙이 있어야 경기의 승패를 수용할 수 있고,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규칙은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기의 흐름을 끊는 역할이 아니다. 선수들을 보호하고, 경기의 수준을 높이고, 참관하는 관중들도 함께 승자를 축하하고 패자를 격려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부싸움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그 규칙은 지켜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다르게 부부싸움은 남편과 아내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심판 없이 두 사람의 성숙도 정도에 따라서,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규칙 있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난장판이 될 수 있는 무규칙 싸움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현명한 중재자가 필요하기도 하다. 현명한 중재자를 스포츠 경기로 치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한 규칙

안에서 갈등을 다루고 있는지 중재와 판단을 해 줄 심판이 필요하다. 부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어른이나 목회자,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부부가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어느 틈에 승패에만 관심이 있는 무규칙 싸움이 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그때부터 부부(夫婦)가 아니라 부부(不和)가 된다.

부부의 규칙은 서로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을 때 세우는 부부싸움의 규칙이라면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바운더리(Boundary)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서로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로 지켜야 할 것과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부 관계를 심각하게 깨뜨리는 행동과 말을 금하는 것이다. 간혹 사소한 일로 감정이 격해져 싸움으로 격화되고 종국에 가서는 “이혼하자”, “갈라서지”는 파괴적 언어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원하는 부부 생활은 깨어진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자주 “이혼하자”, “갈라서지”, “끝내자”는 말

로 부부싸움의 결말을 내리게 되면 결코 회복을 향한 전환점이 될 수 없다. 부부 갈등과 싸움이 ‘서로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패턴을 가진 부부가 반드시 규칙으로 세워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서운해도, 상대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도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금지어를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부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친밀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 말을 금지어로 정했다면, 금지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어’를 찾아보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이면에 있는 자신의 진짜 감정과 진짜 바람을 찾아보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 “우리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극심한 단절감을 느껴”, “정말 힘들지만 여전히 나는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 “당신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지만 지금의 상황은 힘들어” 등의 말이 도움이 된다. 부부 관계에 큰 위협이 되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말과 문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어, 대체 문장을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부부는 관계의 규칙 안에서 더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서로 합의한 언어를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깊은 배신감, 절망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

한 분노 등을 내려놓는 성숙이 동반되어야 한다.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배우자에게 쏟아내고자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잠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표출된 극단적, 부정적, 공격적 감정은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서로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많은 경우 쏟아버린 감정들과 부정적인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와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부부도 갈등과 부정적인 결말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노력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서로의 관계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말들을 파악해보고, 금지어로 정하는 것이 좋다. 금지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어를 정해서 때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오늘 시간 내서 부부싸움의 규칙을 함께 상의하고 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단절적 언어, 파괴적인 행동 등에서 부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부만의 안전한 규칙을 정하자.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여름 Outreach 그 은혜 속으로!

◆ 남양주 다산다락방 온라인 아웃리치 '김사야 선교사 위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있다는 사실

남양주 다산다락방 성도들이 김사야 선교사 가정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다.

매년 여름이면 여러 아웃리치팀이 찾아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다. 그 덕분에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현지 성도들도 큰 힘을 얻었다. 소수에 불과한 현지 성도들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과 외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지 성도들에게 아웃리치는 진짜 큰 힘이 된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다. 그런데 온라인 아웃리치를 경험하면서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 아웃리치에서는 더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선교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아웃리치 첫 순서에서는 남양주온누리교회 다산다락방 성도님들께 캄보디아 선교의 중요성과 시아선교센터의 사역을 나눴다. 동남아는 대륙부(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와 해양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총 10개 국가가 있다. 대륙부는 소승불교, 해양부는 무슬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캄보디아는 어디로든 원활하게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캄보디아 주류 종족인 크메리족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살고 있다. 나는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비전을 품고 학교선교를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도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다. 시아선교센터는 3개 학교에서 매년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장학생 18명을 받는다. 장학생들은 매주 시아선교센터를 찾아와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 태권도, 한국어, 영어, 기타 등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한다. 이 모든 배움은 전도를 위한 것이다. 남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찬양 몇 곡을 부를 수 있으면 동남아시아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시아선교센터와 연결된 학교들도 다음세대를 양육하는데 관심이 많다. 한 학교에서 교과서를 돌려쓰고 있다면서 책 기증을 부탁했다.

그들의 요청인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기독교적 자료를 공급하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역들과 캄보디아 선교의 중요성을 다산다락방 성도들과 나누면서 캄보디아를 향한 선교의 줄기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온라인 아웃리치 두 번째 순서에서는 땡기열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첫째 딸 해원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2019년 9월 우리 가족 5명이 두 번째 땡기열에 걸렸다. 흔히 두 번째 걸리는 땡기열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나도 거의 죽을 뻔했다. 내가 겨우 회복했더니 거의 끝말이던 해원이에게 쇼크가 왔다. 땡기열 바이러스가 뼈를 타고 뇌까지 침투했고 뇌부종이 왔다. 캄보디아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급히 한국에 왔는데 뇌사 추정 판정을 받았다. 해원이는 지금도 병원에서 죽임과 싸우고 있다. 그동안 5년의 죽을 위기가 있었다. 지금은 머리뼈가 뚫려 뇌척수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마에서 고름 같은 게 나와서 거즈가 흥건하게 젖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다산다락방 성도님들이 해원이가 이겨낼 수 있게 함께 기도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주시기로 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우리 가정이 멈춘다.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식당가는 것도 두렵다. 한편으로는 캄보디아도 그림고 학생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다산다락방 성도님들도 나 못지않은 슬픔과 아픔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열방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김사야 선교사(캄보디아)

◆ 서대문공동체 온라인 아웃리치 '김빌립, 이사라 선교사 위로'

흔들림 없는
사랑의 행보

서대문공동체 성도들이 온라인 아웃리치로 중앙아시아 A국 J교회의 여름성경학교에 함께 참여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행보'여야 함을 고백한다. 물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송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대문공동체가 진행한 올해 아웃리치가 그랬다.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흔들림 없는 사랑의 행보였다. 이번 아웃리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서대문공동체 누가다락방과 바울다락방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아웃리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아웃리치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채워주셨다.

서대문공동체 온라인 아웃리치는 중앙아시아 A국에 위치한 J교회 여름성경학교 행사를 참관하는 것이었다. 처음 해보는 방법이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방향도 불투명했다. 그래도 화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온라인으로도 선교지를 보고, 함께할 수 있어서 기대되었다. 아웃리치에 앞서 중앙아시아 A국 김빌립, 이사라 선교사님과 10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준비했다. 멀리 있는 선교지를 위해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아웃리치를 위한 화상 사전 기도회를 3일 동안 진행했다. 선교지 소식을 공유하고, 선교지 기도제목을 놓고 공동체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시원한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선교지를 맞이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화면 너머에는 평균기온 4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와 먼지, 정전사태와 치안의 문제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웃으며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면서 "우리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도 보았다. 조금이나마 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고자 사무실 에어컨을 끄고 아웃리치에 임했다.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섭리를 체험했다. 기쁨과 행복한 모습의 선교사들과 주민들을 떠올리며 나의 생각과 범위만을 주장했던 것을 회개했다. 온라인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 선교지 여름성경학교 예산안을 받았다. 공동체 지원금과 선교지를 향한 특별헌금이 여름성경학교 예산만큼 채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일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방학 기간인데 얼마나 많은 공동체 분들이 온라인 아웃리치에 참여할까?, 많이 참여를 못하면 헌금은 마련이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공동체 지원금과 선교지를 향한 특별헌금이 중앙아시아 A국 여름성경학교 예산의 두 배 이상 모였다. 선교지를 향한 서대문공동체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관심이 큰 열매를 맺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방향임을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역에 흔들림 없는 행보를 이어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 이종민 집사(서대문공동체)



싱글 여성선교사 숙소 '로템하우스' 현판식.

선교사에게 위로와 회복을!

싱글 여성선교사 숙소 '로템하우스' 개소

싱글 여성선교사들을 위한 보금자리 '로템하우스'가 지난 8월 2일(월) 문을 열고 현판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당회운영위원회, 2000선교본부 리더십,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사 및 스태프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로템하우스가 싱글 여성 선교사들의 안식과 회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임성호 선교사(베트남)는 "로템하우스는 싱글 여

성선교사들이 영과 육을 재충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템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로 62번길 20에 있다.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로 총별면적이 208.53㎡ 이다. 지상 1층과 2층에 약 23㎡ 짜리 방 15개와 공동취사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3층 옥상은 운동시설과 라운지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로템하우스 입주 싱글 여성선교사 소감

따뜻한 가족의 품 느꼈다

완공된 로템하우스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감사기도가 나왔다. 창마다 붉은 창살에도 여성선교사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섬세함이 묻어있었다. 1층에 마련된 공동 주방을 보면서 벌써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랜 기도하고 고민, 헌신으로 지어진 로템하우스를 보면서 따뜻한 가족의 품을 느꼈다.

싱글 여성선교사들에게 귀한 공간을 내어주신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에 감사드린다. 이곳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여성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회복을 누리면서 다음 사역을 위한 힘을 충전하기를 바란다.

/ 장영미 선교사(스리랑카)

8월 화요성령집회 '한 여름밤의 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

대학청년부 8월 화요성령집회 '한 여름밤의 꿈'이 한창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8월 화요성령집회는 3일 김윤식 목사 '아침의 꿈(창 28:10~22)', 10

일 최성민 목사 '요셉의 꿈(창 41:1~8)', 17일 이서진 목사 '솔로몬의 꿈(대하 1:1~13)', 24일 이서진 목사 '베드로의 꿈(행 10:9~16)', 31일 최성민 목사 '요한의 꿈(계 21:1~8)'을 주제로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보라통독 2기, 비전통독 7기 개강

'보라통독 2기' 세미나가 8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상준 목사(〈보라통독〉저자)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은 OBC 2학점이 인정된다.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통독하는 '비전통독 7기' 세미나가 8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비전통독〉저자 조상연 목사(쥬이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문의: 02-2078-3279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어린이신문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어린이신문에 들어갈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A4용지 기준 2~3줄), 이름, 소속,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내준 작품은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에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한국어선교학교 9월 4일 개강

8월 14일~31일 아이스쿨 신청

한국어선교학교가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주 동안 온라인 실시간(Zoom)으로 열린다.

한국어선교학교는 이주민이나 난민 등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수법을 가르치는 훈련 과정이다. 한국어선교 필요성과 전략, 한국어 발음, 문법, 문화 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실제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한다.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교수법을 활용하고, 한국어선교 학교 자체 교제로 강의와 나눔, 훈련을 진행한다.

신청은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타교회 세례교인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3290-4506

하비스트를 위한 릴레이 기도

8월 16일부터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



사진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하비스트.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를 준비하면서 '하비스트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한다. '하비스트를 위한 릴레이 기도'는 8월 16일(월)부터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에 참여하는 15개국을 위해 매일 기도할 예정이다.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는 오

는 9월 21일(화) 온누리 M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나라 언어로 제작된 설교, 찬양과 강의 등을 업로드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오프라인 원데이 하비스트'를 개최할 수도 있다.

문의: 031-491-9650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여름 아웃리치 간증 및 사진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이메일 제출

온누리신문에서 여름 아웃리치 간증 및 사진을 모집하고 있다. 공동체 및 사역팀, 대학청년부의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역 사진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면 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여름 아웃리치 간증 분량은 A4용

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 여백 기본 설정)이다. 사진은 사역하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 공동체 단체 사진 등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 아웃리치 사진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

문의: 02-6959-0001

/ 홍하영 기자

두란노 어머니학교 훈련생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추석 연휴 기간 제외).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

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8월 30일까지 두란노 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 또는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2-2182-9110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 도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uckland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 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담당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도곡환

● **부목사(전임)**

감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신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웅 김태완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림보홍 문재정 문장원
박시형 박성온 박성빈 박기열
박성진 박재웅 박전중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변대성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기섭 신원식 스티브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구 원유진 유수열
유영준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박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세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민 이찬우 이현규
임용성 장영원 전신익 전제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영호 주기철
지대근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혁중 최정훈 한은선
한호수 한홍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 **전도사(전임)**

김승겸 김한국 신현민 송동주
윤수진 전병현 최종현 하성희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박이호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가 나 김병석 김병철 김병준
김태주 김혜경 권수진 노대규
네트라 누이엔은 박주배
민현식 박근명 박희마 백승훈
성태배 사가트 월라업 이병준
이성광 이승윤 이진익 윤준석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랑
최일관 최정현 차재이 크리스티안
하루솔란

● **전도사(파트)**

강하람 권은영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세미 김세환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주영 김정미 김지선 김재석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태영
김하은 김현정 노동준 민근홍
민희영 박미애 박선익 방성주
박소광 박영규 박영우 박이호
박은만 박유진 박지수 박정우
박성진 박재웅 박전중 박철웅
빌 케 배명지 백요한 서예찬
서영찬 서영철 송유진 송선애
송우환 송예찬 송소영 이기환
신대종 양주영 여지휘 여연구
오국현 오성광 오대경 오현교
윤상은 우승민 유성하 윤신혁
윤슬기 윤지은 윤태정 윤효정
이경아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욱
이현호 이세영 이세원 이준호
이수호 이신임 이엘렌 이용민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현석 이형목
임광범 임노완 임승아 임지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사라
장요셉 장요한 장지훈 전소리
정상원 정연영 정준혁 정예스터
정연상 정예은 조은광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선미 진성희
최규중 최은영 최휘준 최위준
황기호 황현진 황유일

●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구재영 권도원 권득한 권영철
권용성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중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성우 김승영 김영수 김 안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원규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종진 김중성
김중순 김주용 김진국 김현철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복록 박상송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홍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민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정규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양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진 유병훈 유한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영주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근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준 이재호 이준호
이창남 이 철 이현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영준 전구영 전장희 장광무
전도원 정준영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용화 정재택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영일 차승철 차주근
전영무 최득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정규 최창수 최홍길
최영남 최재필 편무옥 하여철
하용기 한갑수 한구준 한덕중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곡식
한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태욱 고다이라

곽진성 곽희준 권오습 권순형
권용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광하 김기열 김동인 김남순
김민찬 김병세 김병현 김병호
김병순 김병욱 김성갑 김성철
김성국 김성중 김성진 김영관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원호 김 원 김의덕 김인선
김정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호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상권 나 영 나영옥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영호 노기훈 노하수 류기범
남영찬 문정찬 문영기 문정호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준홍 박광환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우형 박일근
박영민 박정환 박지수 박재두
박지완 박해환 박현규 박형민
박홍근 박홍선 박찬중 서명수
백종진 백종욱 서대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열 서성현 성주명
송기철 송정태 송태웅 송동성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화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경 양종식 오 명 오범규
양성욱 양성훈 오이식 윤내훈
우성구 원종훈 오영진 서명수
유 형 육동근 윤석우 윤석주
윤영각 윤원덕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현 이기중 이길수
이갑식 이동규 이동욱 이배용
이봉의 이상도 이상을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우정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규 이정규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태일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현규 이흥선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식
장선철 장영수 전하배 정광열
정대서 정영국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국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용화
정진하 정태경 정파중 정희중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환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희동
주재광 진종구 차준환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만 최용재 최주관 최찬희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현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왕식
한창기 한창희 한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익서

●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김창수 박성규 박성근 박성근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진석 지성환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 **협동장로**

김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배드백스 박자인
박형규 양소중 우상근 유재천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하
최원호 최종훈 추교범 함지연

●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진주 김병우 김병오 김재형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창원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영 이미진 이미희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예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과 조익현 정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재 정

십일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보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케이션재단)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 고

안산 온누리M센터 베트남 주일예배 반주자 모집
분야: 키보드 반주 1명
시간: 매주일 오후 2시
문의: 이익식 팀장(010-3708-7926)

두란노서원 편집디자인 채용
업무: 어린이 큐티지 <예수님이좋아요-고저학편>
편집 디자인
모집: 정규직, 주5일 근무, 경력 1년 이상
지역: 용산구 서빙고동 본사
접수: 8월 8일까지
지원: http://www.duranano.com/recruit/

서빙고 한마음공동체 피아노반주자 모집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0:30-오후 1:00
대상: 코드반주가 가능하며 예배팀 경험이 있는 분
문의: 김재혁 010-3353-9150

소 천

7/30(금) 감사 홍순재 성도 부친상 고 흥종만
7/31(토) 송파A 정영환 안수집사 모친상 고 조중행
7/31(토) 강남A 강동승 안수집사 부친상 고 강신욱
7/31(토) 성북 기마라 권사 부친상 고 기세정
8/1(주일) 마포 고 조미자자 집사
8/1(주일) 용산 김선옥 성도 부친상 고 김정목
8/1(주일) 성북 우주현 성도 모친상 고 박명진
8/3(화) 고양은평 김용순 집사 모친상 고 조희원
8/4(수) 마포 고 박정희 성도
8/4(수) 영등포구로 조창호 집사 모친상 고 김선태
8/5(목) 가정사역 이진영 성도 부친상 고 이계실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노라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
집
내용: 중장기센터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활품
후원요청
내용: 힘터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용품 및 생활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서울시민 무료취업 지원
내용: 고령자맞춤직업 일자리 알선을 통한 취업지원
(경비원, 요양보호사 등)
문의: 김수지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청노인종합복지관 IT체험동 봉사자 모집
내용: 퍼스널, 그룹형 인지훈련로봇, AI로봇, VR 체험동 활동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구립 네티나무터틀 시니어 크리에이터 오디션
내용: 서초구 5070 대상, 인 방송 활동가 선발 & 육성, 무료교육 및
유류비 활동 지원
문의: 김재훈 피디(02-6953-7133)

서초50플러스센터 사,이,다 공모전 개최
내용: 사소하지만 이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15분 영상으로 제출
문의: 선조원PM(070-4304-6913)